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에 따른 남성의 유형화와 데이트폭력 차이 분석: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여*

홍세은**·한민경***

국 | 문 | 요 | 약

본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2015」 자료 중에서 성인 미혼 남성 2,0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트폭력 가해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응답자들의 성격 특성 및 폭력태도를 기준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하여 유형화한 후,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고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수준이 하위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관계안정형, 폭력억제형, 폭력관용형, 폭력지향형의 4가지 하위유형이 도출되었다.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관계안정형은 관계에 긍정적인 방향의 영향을 미치는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었으며, 폭력억제형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폭력에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가지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반면 폭력관용형은 폭력억제형과 유사한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비교적 폭력에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폭력지향형은 폭력관용형보다 훨씬 더 폭력에 허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하위유형에 따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수준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행동통제, 정서폭력, 신체폭력, 성적폭력 모두에서 폭력지향형이 가장 높은 수준의 폭력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억제형이 폭력관용형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준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보이는 결과는, 폭력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가 데이트폭력 행동의 발현을 억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폭력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의 시행이나, 폭력 관련 태도의 교정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1.12.31.4.1>.

❖ 주제어 : 데이트폭력, 유형화, 성격 특성, 폭력태도, 잠재 프로파일 분석

* 이 논문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15-AA-13)의 제공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동 학술지에서 발간된 홍세은·정지수의 논문(2019)과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해당 논문과는 독립된 후속연구임.

**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범죄학과 박사과정. 주저자

*** 경찰대학 행정학과·치안대학원 범죄학과 교수. 교신저자(m.han@police.ac.kr)

I. 서론

최근 데이트폭력으로 시작한 범죄가 교제살인으로까지 비화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정책적 대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의 데이트폭력 관련 검거 건수는 9,858건으로 2013년에 비해 3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전체 검거 건수 중 7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¹⁾ 데이트폭력이 가벼운 다툼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실태는 데이트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한 집중적인 탐색과 예방 또는 중단을 위한 개입방안의 마련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IPV: Intimate Partner Violence)에 해당하는 데이트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력행동이 어떤 특성에 의해 촉발되었는지 밝혀내어 이러한 특성을 근본적으로 교정하는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중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유형화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어 온 데 비해(김현수·신윤미·조선미·정영기·임기영, 2004; 장희숙·김예성, 2004; Elbow, 1977; Faulk, 1974; Gondolf, 1988; Saunders, 1992; Hamberger, Lohr, Bonge, & Tolin, 1996; Holtzworth-Monroe & Stuart, 1994; Jacobson & Gottman, 1998),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특성을 유형화한 국내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일견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유형화 연구들이 데이트폭력 또한 포섭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가 법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고 자녀나 양가 가족 등 다른 이들의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가정폭력과는 그 특성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유형화와는 별도로 데이트폭력 측면에서의 유형화를 통한 직접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이 없는 남성을 배제하고 가해행동을 한 전력이 있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유형화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가해행동을 한 경험이 없는 남성과 가해 경험이 있는 남성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이 얼마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김현수 외, 2004; 장희숙·김예성, 2004; Elbow, 1977; Faulk, 1974; Hamberger & Hastings, 1986).

1)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 9. 2.).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35쪽.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해행동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 남성 전체를 연구대상의 모집단으로 하여, 성격 특성 및 폭력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이들을 하위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성격 특성 및 폭력에 대한 태도에 따라 구분된 성인 남성의 하위유형별로 데이트폭력 행동의 심각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데이트폭력의 측면에서 성인 남성들을 유형화함과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을 가해행동을 하지 않는 남성들의 특성과 비교하고, 데이트폭력에 가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각 하위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데이트폭력 예방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데이트폭력의 개념

데이트폭력은 “연인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서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폭력”을 의미한다(김정란·김경신, 1999; 이숙정·권호인, 2021; Straus, Hamby, Boney-McCoy, & Sugarman, 1996). 데이트폭력은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미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후 관계에 부정적인 손상을 미칠 수 있는 정서폭력이나 행동통제와 같은 간접적인 폭력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력과 구분된다(구혜영, 2017; 김동기, 2009; 사공은희, 2007). 이러한 데이트폭력은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성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폭력이라고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중재 또는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실제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행동을 데이트폭력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일부 학자들은 신체폭력과 성적폭력을 아울러 데이트폭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Makepeace, 1981), 데이트폭력을 신체적인 폭력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Lloyd, Koval, &

Cate, 1989; Sugarman & Hotgaling, 1989), 상대방에게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것까지도 데이트폭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오윤희·임성문, 2019). 언어적인 위협이나 상대를 향한 위협적 행동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데이트폭력의 정의를 확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으며(Anderson & Danis, 2007), 신체적·성적폭력뿐만 아니라 심리적·언어적 폭력, 그리고 심지어 경제적 폭력과 같은 간접적인 통제행동과 감시까지도 데이트폭력의 정의 내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이화영, 2014). 이와 유사하게 세계보건기구(WHO; 2010)도 연인 관계 내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행동통제 행위까지 포함한 모든 폭력행동을 데이트폭력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홍영오, 2017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직접적인 상해나 피해를 미치지 않더라도 언어적 위협과 같은 심리적 폭력이나 행동통제 또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고통과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체폭력이나 성적폭력뿐만 아니라 행동통제와 정서폭력 모두를 데이트폭력의 범주에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네 가지 데이트폭력의 유형은 심각성이나 폭력의 직·간접성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에 따라 분류한 하위유형별로 주로 나타나는 데이트폭력의 유형이나 폭력행동의 심각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자 하였다.

2. 데이트폭력 관련 영향요인

데이트폭력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촉발하거나 억제하는 요인을 밝히고자 수행되었다. 데이트폭력 관련 선행연구의 한 축은 폭력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성격 특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개인차 이론을 기반으로 데이트폭력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개인차 이론으로 폭력행동이나 데이트폭력 행동을 설명하고자 했던 선행연구들은 경계선적 성격 특성, 애착유형, 충동성 등이 폭력행동의 가능성을 높이는 영향요인임을 밝혀왔다(홍영오, 2017; Cicchetti & Howes, 1991; Dardis, Dixon, Edwards, & Turchick, 2014). 실제로 한 연구는 아동기 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에 대한 위협요인임을 검증하였는데, 이때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조절효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조우연·김경희, 2015). 즉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기 폭

력경험이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특성 중 보호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이 연구에 많이 활용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이 분노 표출 행동, 청소년 비행, 위법행동 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박현민·이병도·서우승·이창배, 2019).

데이트폭력 관련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다른 한 축은 사회학습이론을 통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설명해왔다(김재엽·송아영, 2007; 박현민 외, 2019; 홍영오, 2017; McCloskey & Lichter, 2003). 사회학습이론은 범죄란 개인이 범죄와 관련된 행동 양식을 학습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이러한 학습은 가족이나 또래집단처럼 친밀한 관계 내에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된다(Bandura, 1978; Sutherland, 1947).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죄 행동 외에도 범행의 동기나 범위반에 대한 태도 등도 함께 학습된다.

사회학습이론의 측면에서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은 가해자들이 친밀한 집단으로부터 폭력적인 행동 양식과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학습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일차적 사회화 집단이 가정이기 때문에 성장기 학대경험이나 가정폭력에의 노출은 성인기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기존 선행연구들이 성장기 아동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되거나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이르러 폭력행동 또는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김예정·김득성, 1999; 김유정·서경현, 2009; 조춘범, 2012; Dardis et al., 2014). 예를 들어 한 연구는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같은 직접적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간접적인 피해경험보다 데이트폭력의 가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유고은·이창배, 2021), 또 다른 연구는 가정폭력에의 노출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가능성을 높이며, 이때 자아존중감이 조절효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김수민·이창배, 2021).

사회학습이론에서 설명하는 ‘학습’에는 직접적인 폭력 행위에 대한 학습 외에도 범위반에 대한 태도나 범행 동기에 대한 학습도 포함된다. 따라서 아동기에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거나 학대피해를 경험하는 것은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ndura, 1978; Sutherland, 1947). 기존 연구들은 성장기에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경우, 폭력을 갈등의 해결이나 입장의 관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학

습하게 되고 폭력행동이 친밀한 관계 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게 되어 폭력에 우호적이며 허용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김동기, 2009; 김예정·김득성, 1999; 김은경·엄애선, 2010; 서경현, 2009; 윤진·양승연·박병금, 2012; 이병도·조춘범, 2013).

이어서 많은 선행연구들은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와 폭력을 갈등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학습된 폭력이 데이트폭력 행동을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김수민·이창배, 2021; 김예정·김득성, 1999; 서경현·김봉진·정구철·김신섭, 2001; 손혜진·전귀연, 2003; 신혜섭·양혜원, 2005; 홍세은·정지수, 2019; O'Keefe, 1997).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폭력정당화와 데이트관계신화와 같은 폭력인식이 성폭력, 성희롱, 스토킹 등 여러 유형의 데이트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채영·정소영·이명신, 2010). 폭력허용도가 행동통제와 신체적, 성적 폭력인 물리적 데이트폭력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여,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 행동통제가 물리적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한 연구도 있다(김동현·박주애·곽대경, 2021).

선행연구를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개인차 이론에서 자아존중감, 경계선적 성격 특성, 애착유형(회피애착, 불안애착)을, 사회학습이론에서는 폭력에 대한 학습된 태도, 즉 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허용도, 폭력대응에 대한 태도를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성인 남성의 하위유형을 추출하였다. 이때 본 연구는 폭력행동을 초래하는 배경적 요인인 원거리(distal) 변수보다는 폭력행동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거리(proximal) 변수만을 고려하여, 보다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잠재 프로파일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원거리 변수에 해당하는 부모의 폭력 목격이나 학대 경험은 잠재 프로파일 구성 변수에서 제외한 뒤 근거리 변수에 해당하는 애착, 태도 요인 등을 활용하여 (Holtzworth-Monroe & Stuart, 1994) 성인 남성의 하위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 간 데이트폭력 행동의 차이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3.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가해자 유형화 연구

국내에서 데이트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유형화 연구는 드물지만, 데이트폭력과 함께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폭력(IPV)에 속하는 가정폭력과 관련하여서 가해자의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들은 다수 있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장희숙과 김예성(2004)은 사법부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국 217명의 가정폭력 가해남성들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가해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1번 유형은 아내에게만 폭력행동을 보이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평등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고, 2번 유형은 중간 수준의 폭력성을 보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의존성, 경계성, 회피성, 수동공격성을 기록하였으며 주장기술이 부족하고 부부관계에서 불만족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번 유형은 신체적·정서폭력의 정도가 높고 아내뿐만 아니라 일반적 상황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며, 가장 높은 반사회성과 공격성을 나타내고 아동기에 학대를 당한 경험이 가장 많으며 알코올 남용이 심한 통제력이 낮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때 3번 유형의 경우에는 여성의 성역할에 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폭력 사용에 대한 허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김현수 외(2004)는 수원지방법원 가정보호사건부 판사에 의해 처분을 받은 대상자 중 수원보호관찰소를 방문하는 가정폭력 가해자 99명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가정폭력 남성 가해자를 유형화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세 개의 군집이 발견되었는데, 1번 군집은 발달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병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편집증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였으며, 정신분열형 인격장애 척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사고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었다. 2번 군집은 우울증이나 히스테리와 같은 신경증 척도가 높게 나타나 감정을 억압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은 가정 내에서는 폭력적일 수 있으나 가정 밖에서는 오히려 수동적이고 순응적일 수 있는 유형임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3번 군집은 병리적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일반인보다 공격성에 관련된 척도에서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보통 사람들에 비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유형임을 시사하였다.

위 선행연구들은 가정폭력을 하는 가해자들을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자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나, 가정폭력 가해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일반 남성들과 구분되는 특성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일부 연구는 유형에 따라 실제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김현수 외, 2004).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그들이 보유한 성격 및 폭력에 대한 태도 특성에 따라 이들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렇게 도출한 하위유형별로 데이트폭력 행동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 특성 및 폭력에 대한 태도에 따른 성인 남성의 하위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며 각각의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각 하위유형별로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즉 행동통제, 정서폭력, 신체폭력, 성적 폭력 행동의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2. 자료 및 측정

가. 연구자료

본 연구는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에 따라 유형을 추출하고 각 유형 간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2015」 자료 중 19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 미혼 남성 2,0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트폭력 가해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²⁾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표 1), 먼저 응답자의 연령은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1,263명(63.1%)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0대 응답자는 535명(26.8%), 40대 응답자는 162명(8.1%), 50대 응답자는 40명(2.0%)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인 경우가 1,256명(62.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은 309명(15.5%), 2년제 대학 졸업은 280명(14.0%)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이성 교제 당시 고용상태는 정규직이 797명(39.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인 경우는 472명(23.6%), 아르바이트 등의 직업을 가진 학생이었던 경우는 397명(19.9%), 휴직이나 실업 또는 정년퇴직 및 가사 전담이라고 답한 경우는 168명(8.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19~29세	1,263	63.1
	30~39세	535	26.8
	40~49세	162	8.1
	50~59세	40	2.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0	1.0
	고등학교 졸업	309	15.5
	2년제 대학 졸업	280	14.0
	4년제 대학 졸업	1,256	62.8
	대학원 이상	135	6.8
고용상태	정규직	797	39.9
	비정규직	166	8.3
	아르바이트 학생	397	19.9
	학생	472	23.6
	휴직 등 기타	168	8.5

주. N = 2,000명

- 2)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2015」는,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미혼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데이트폭력 피해실태’ 조사와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미혼 남성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폭력 가해실태’ 조사로 구분되어 조사되었다. 이때 연구의 대상이 되는 표본은 조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패널 약 110만 명을 대상으로 인구비례 할당추출방법을 활용해 추출되었고, 조사항목이 사적이고 민감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을 수집하였다(홍영오·연성진·주승희, 2015). 특히 조사의 목적을 고려하여 현재 이성 교제를 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성 교제를 한 경험이 있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응답을 수집하였다.

나. 변수의 측정³⁾

1) 잠재 프로파일 구성을 위한 변수의 측정

응답자인 성인 미혼 남성을 유사성에 따라 군집화하기 위해 개인의 성격 특성(자아존중감, 경계선 성격장애, 회피애착, 불안애착) 및 폭력태도 특성(연인 간 폭력에 대한 태도, 연인 간 폭력대응에 대한 태도, 폭력허용도)과 관련된 7가지 변수를 활용하였다. 군집화에 사용된 변인들은 가정 및 데이트폭력에 대한 선행연구들로부터 도출하였다.

성격 특성 중 자아존중감은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등의 10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남들에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다’, ‘대체로 나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때때로 나는 내가 전혀 유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4개 문항은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이때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10개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을 평균하여 변수를 구성한 뒤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성격 특성 중 경계선 성격장애는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 Borderline; PAI-BOR; Morey, 1991)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화가 나면 거의 통제할 수 없다’와 같이 충동성을 질문하는 문항과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변덕스럽다’와 같이 관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는 23개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나는 항상 행복한 사람인 편이다’, ‘내 기분은 잘 바뀌지 않는다’, ‘나는 쉽게 싫증을 느끼지는 않는다’, ‘나는 신중하게 돈을 쓴다’의 4개 문항은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지에서는 ‘내 기분은 매우 갑작스레 변한다’라는 문항을 두 번 질문하였기 때문에 이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하여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격 특성 중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은 성인애착유형 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 ECR; Brennan, Clark, & Shaver, 1998)를 통해 함께 측정되었다. 성인애착유형 척도(ECR)는 회피와 불안애착에 대해 측정하는데, 회피애착은

3)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관을 통해 수집된 2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각 척도를 통해 측정하고자 한 구성개념(construct)들이 적절히 측정되었으며, 구성타당도에 문제가 없다고 가정한 뒤 연구를 수행하였다.

‘내가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상대방이 막 나와 친해지려고 할 때 꺼려하는 나를 발견한다’ 등의 18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나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매우 편안하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비교적 쉽다’, ‘나는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나는 대개 다른 사람에게 내 문제와 고민을 상의한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편안하다’, ‘나는 상대방에게 위로, 조언 또는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 ‘내가 필요로 할 때 상대방에게 의지하면 도움이 된다’, ‘나는 위로와 확신을 비롯한 많은 일들을 상대방에게 의지한다’와 같은 9개 문항은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18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하여 변수화 하였다.

불안애착은 ‘나는 버림을 받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편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만큼 그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봐 걱정이다’ 등의 18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으로 측정되었으며, 이 중 ‘나는 버림받는 것에 대해 때때로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1개 문항은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이어서 폭력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변수들을 측정하였다. 먼저 폭력태도 중 연인 간 폭력에 대한 태도는 ‘남자친구에게 뺨을 맞을 만한 여자도 있다’, ‘때때로 남자들은 여자친구에게 주먹질하는 것을 멈출 수 없을 때가 있다’ 등의 12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연인 관계 내에서 폭력을 긍정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남자친구가 때리면 헤어져야 한다’, ‘여자친구를 때리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여자친구를 밀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와 같은 4개 문항은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연인 간 폭력에 대한 태도는 역코딩 후 12개의 문항을 평균하여 변수로 구성하였다.

폭력허용도는 대인관계 내 갈등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헤어지자고 위협하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논쟁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욕이 섞인 호칭으로 부르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가족/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우습게 만든다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밤에 다른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것을 막으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의 8개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이 응답들을 평균하여 폭력허용도 변인으

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폭력태도 특성 중 연인 간 폭력대응에 대한 태도는 폭력행동에 대한 대응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연인 간에 발생한 폭력행동을 문제 삼아 대응하는 것을 꺼리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변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아도 된다’, ‘데이트 중 폭력의 대부분은 연인 중 한명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폭력을 당한다면, 나의 잘못이다’, ‘연인 사이에서 맞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참는 것이다’, ‘연인 간 파트너를 때리는 것은 일종의 사랑싸움으로 문제시 할 필요가 없다’, ‘연인관계에서 싸우고 난 후의 성관계는 화해 또는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폭력적인 연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더 베풀어야 한다’, ‘연인간의 폭력은 사적인 일이므로 제3자가 개입할 필요없다’와 같은 8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으로 정의하였다.

자아존중감과 회피애착 및 불안애착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경계선 성격장애, 연인 간 폭력태도, 폭력허용도, 그리고 연인 간 폭력대응과 같은 나머지 모든 변인들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에서 4점(매우 그렇다 또는 완전 동의함)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각 변인은 하위 문항들의 응답점수를 평균하여 산출되었으며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2>와 같다. 잠재 프로파일 구성을 위해 투입된 변수들인 자아존중감, 경계선 성격장애, 회피애착, 불안애착, 연인 간 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대응에 대한 태도, 폭력허용도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회피애착, 불안애착은 1~5점 범위 내에서 평균이 각각 3.62와 2.82, 2.65로 나타났으며, 경계선 성격장애와 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대응에 대한 태도, 폭력허용도는 1~4점 범위 내에서 평균이 각각 2.23, 2.09, 1.57, 1.31로 나타났다. 크론바흐 알파값을 통해 내적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에 대해 중간 수준 이상의 일관성이 확인되었다. 한편, 잠재 프로파일 분석 시에는 변수 간 척도의 범위가 다름을 고려하여, Z 표준화 값을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2) 데이트폭력 관련 변수의 측정

이어서 잠재 프로파일 간 데이트폭력 행동의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데이트폭력 변인들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은 연

인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신체적 위해를 하거나 그럴 의도가 인정되는 폭력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Straus et al., 1996; 김정란·김경신, 1999),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행동통제, 정서폭력, 신체폭력, 그리고 성적폭력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유형은 임채영 외(2010), 박현민 외(2019) 등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와 동일하게 구분하고 있다.

행동통제의 구체적 문항은 ‘옷차림을 제한했다’, ‘다른 사람과 통화하지 못하게 했다’ 등 11문항이었고, 정서폭력은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등 7문항, 신체폭력은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던진 적이 있다’, ‘팔을 비틀거나 꼬집은 적이 있다’ 등 12개 문항, 그리고 성적폭력은 ‘여자친구가 원하지 않는데도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진 적이 있다’ 등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유형을 측정한 모든 변수의 크로바흐 알파값은 0.9 이상으로 높은 일관성을 나타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하여 도출한 종속변수, 즉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행동통제, 정서폭력, 신체폭력, 성적폭력으로 나누어 기술 통계량을 확인하였다. <표 2>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행동통제의 평균은 1.50점, 정서폭력의 평균은 1.25점으로 나타났으며 신체폭력의 평균은 1.13점, 성적폭력의 평균은 1.21점으로 나타났다. 이후의 분석에서는 결과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Z 표준화 값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량

구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Cronbach's α
성격	자이존중감	3.62	.62	1.20	5.00	0.88
	경계선 성격장애	2.23	.38	1.00	3.50	0.67
	회피애착	2.82	.43	1.39	4.61	0.78
	불안애착	2.65	.63	1.00	4.83	0.92
폭력태도	폭력에 대한 태도	1.87	.49	1.00	3.75	0.78
	폭력허용도	1.31	.53	1.00	4.00	0.94
	폭력대응에 대한 태도	1.57	.51	1.00	4.00	0.82
데이트폭력	행동통제	1.50	.65	1.00	5.00	0.93
	정서폭력	1.25	.55	1.00	5.00	0.95
	신체폭력	1.13	.44	1.00	4.50	0.98
	성적폭력	1.21	.44	1.00	4.18	0.92

3. 분석 방법

가.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성인 남성을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자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에 대한 특수한 형태의 하나로, 잠재계층을 측정하는 변수(latent class indicator)가 이분형이 아닌 연속형일 때 연구대상의 응답 패턴에 따라 응답의 양상이 유사한 하위집단을 추정하는 방법이다(Muthén & Muthén, 2017).

모집단 내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하위집단을 도출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되어 온 것은 군집분석이다. 그러나 군집분석은 분류한 하위 군집이 얼마나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는 통계적인, 즉 객관적인 기준(criteria)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잠재계층분석이나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하위집단 수를 결정함에 있어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87),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z, 1978)와 같은 모형적합도 지수를 비교하거나 Lo-Mendell-Rubin(LMR; Lo, Mendell, & Rubin, 2001) 검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분석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각 하위집단에 연구대상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정확성을 의미하는 지수로 Entropy를 사용하는데, 이때 Entropy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하위집단 분류가 정확하다고 판단한다(Morin, Morizot, Boudrias, & Madore, 2011).

본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여 응답자 내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하위 유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즉 자아존중감, 경계선 성격장애, 회피애착, 불안애착과 같은 성격적 특성과, 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대응에 대한 태도, 폭력허용도와 같은 태도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이러한 특성이 유사한 응답자를 하나의 하위유형으로 분류하여 서로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하위유형들을 구분하고, 실제로 유형 간 데이트폭력 행동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 수행에는 Mplus 8.6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나.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분류된 남성의 유형에 따른 각 특성의 차이와 데이트폭력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은 모든 종속변인에 대해 분산의 동질성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비모수적 검정인 Games-Howell 방법을 활용하였다. 데이트폭력은 행동통제, 정서폭력, 신체폭력, 그리고 성적폭력의 4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추출한 하위유형 사이에 데이트폭력의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이때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SPSS 25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파일 수를 변화시키며 반복적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한 뒤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여 최적의 잠재 프로파일 수를 선정하였다. 이어서 선정한 프로파일 수를 기반으로 자료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한 뒤, 각 잠재 프로파일의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하여 도출된 각각의 잠재 프로파일이 행동통제, 정서폭력, 신체폭력, 성적폭력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과정을 통해 성인 남성을 유형화하고, 유형에 따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1. 모형적합도 비교를 통한 최적의 잠재 프로파일 선정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먼저 프로파일의 수를 달리하며 반복적으로 분석하여 모형적합도가 가장 좋은 최적의 프로파일 수를 정한 뒤, 이어서 도출된 잠재 프로파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위유형을 명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성인 남성 응답자 내에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하위유형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몇 개의 하위유형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재 프로파일 수를 1개에서 4개까지 변경하며 일련의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잠재 프로파일이 1개라고 가정한 모형보다 2개라고 가정하였을 때 Log Likelihood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AIC, BIC와 SABIC 값 등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MR LR, ALMR LR, BLRT와 같은 LR 검정 결과들에서도 잠재 프로파일이 1개인 경우에 비해 2개인 경우에 모형의 향상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 내에 서로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잠재적인 하위유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잠재 프로파일을 3개라고 가정한 경우, 2개로 가정한 경우에 비해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라고 가정한 경우에도 3개라고 가정한 경우와 비교하여 모든 모형적합도 지수가 향상되었으며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 값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잠재 프로파일을 5개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적합도는 높아졌으나 LR 검정값의 유의도는 다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3개~5개의 잠재 프로파일에 대한 특성을 살펴본 뒤, LR 검정값의 유의도와 이론적인 설명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4개의 잠재 프로파일에 대한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선정하였다.⁴⁾ 이때 Entropy 값은 0.846으로 나타나 분류의 질이 좋음을 확인하였다.

〈표 3〉 잠재 프로파일 수에 따른 모형적합도

프로파일 수	Log L	AIC	BIC	SABIC	Entropy	LMR LR p 값	ALMR LR p 값	BLRT p 값
1	-19861.64	39751.28	39829.69	39785.21	—	—	—	—
2	-18070.78	36185.55	36308.77	36238.88	0.985	<0.001	<0.001	<0.001
3	-17465.95	34991.90	35159.93	35064.61	0.824	<0.001	<0.001	<0.001
4	-17147.72	34371.43	34584.27	34463.54	0.846	.0012	.0013	<0.001
5	-16970.21	34032.42	34290.06	34143.92	0.865	.0288	.0301	<0.001

4) 이때 잠재 프로파일을 5개로 증가시키면 하나의 집단이 3% 미만의 비율을 차지하게 되며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집단이 여러 개로 구성되는 등 해석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잠재 프로파일의 수를 4개로 가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잠재 프로파일의 수를 4개로 확정한 후, 도출된 각각의 잠재 프로파일에 속한 응답자의 수와 비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각 응답자가 1번부터 4번까지의 잠재 프로파일에 속할 확률을 각각 산출하고, 이 과정을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반복하였다. 그런 후에 각 응답자를 소속 확률이 가장 높은 잠재 프로파일로 배정하였다. 그렇게 응답자를 각 잠재 프로파일에 할당한 결과는 아래 <표 4>의 프로파일별 응답자 수와 비율(%)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렇게 각 잠재 프로파일에 소속된 응답자들이 보유한 각 잠재 프로파일에 속할 확률을 평균한 값을 <표 4>의 왼쪽에 제시하였다. 이때 행으로 제시된 1~4는 각 응답자가 실제로 배정된 잠재 프로파일의 번호를 의미하며, 열로 제시된 1~4는 산출된 각 잠재 프로파일의 소속 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대각선 왼쪽 가장 위에 있는 0.885는, 1번 잠재 프로파일로 배정된 응답자들의 1번 잠재 프로파일의 소속 확률에 대한 평균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표 4> 잠재 프로파일별 소속 확률 평균

잠재 프로파일	1	2	3	4	프로파일별 응답자 수	프로파일별 응답자 비율(%)
1	0.885	0.112	0.002	0.000	659	33.0
2	0.087	0.908	0.004	0.000	962	48.1
3	0.010	0.035	0.931	0.024	204	10.2
4	0.000	0.000	0.037	0.963	175	8.8

주. 잠재 프로파일별 응답자의 수와 비율은 응답자 개개인이 각 잠재 프로파일에 속할 확률을 산출한 뒤 가장 높은 소속 확률을 가지는 잠재 프로파일에 배정한 결과임

2. 잠재 프로파일 유형별 특성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4개의 잠재 프로파일 유형별 특징을 7가지 변인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표 5). 첫 번째 잠재 프로파일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경계선 성격 특성이 낮으며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의 특성을 보이지 않고 연인 관계 내에서 폭력을 긍정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낮고 폭력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자 하며, 폭력 허용도가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이 유형은 개인 성격 특성과 폭력태도가 전반적으로 모두 안정적임을 고려하여 ‘관계안정형’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잠재 프로파일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경계선 성격의 특성이 나타나며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의 특성을 보이나, 관계 내에서 폭력을 긍정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보통이고 폭력에 반대하여 대응하고자 하며, 폭력허용도가 낮은 특성을 보이는 유형으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폭력태도를 갖고 있으나 폭력에 대한 태도와 허용도가 전반적으로 폭력행동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폭력억제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어서 세 번째 잠재 프로파일은 앞서 살펴본 폭력억제형과 유사한 수준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경계선 성격 특성, 그리고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의 특성을 일부 나타내고 있으나, 폭력억제형과는 달리 폭력에 대한 태도가 매우 긍정적이고 폭력허용도가 매우 높으며, 연인관계에서의 폭력 사용을 꺼리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 번째 잠재 프로파일의 경우에는 폭력에 허용적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폭력관용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잠재 프로파일은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고 경계선 성격의 특성을 높게 나타내며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의 특성을 높게 가지고 있고 관계 내에서 폭력을 긍정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높으며 폭력을 문제시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높고 폭력허용도 또한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이는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성과 폭력태도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폭력지향형’이라고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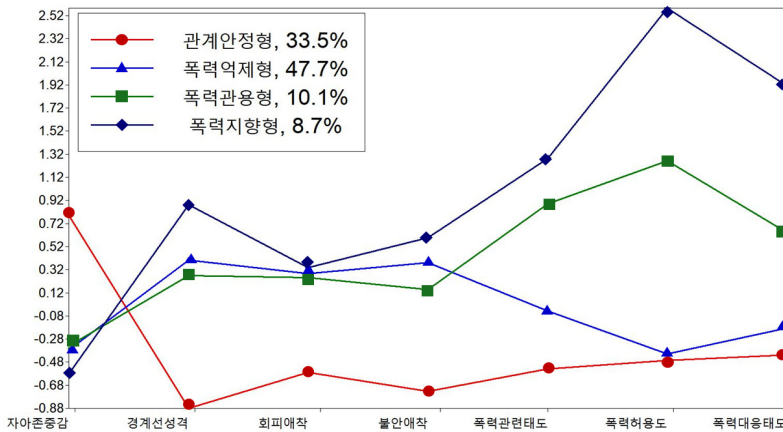
〈표 5〉 잠재 프로파일별 응답 특성

변수	잠재 프로파일			
	1: 관계안정형 (N=659, 33.0%)	2: 폭력억제형 (N=962, 48.1%)	3: 폭력관용형 (N=204, 10.2%)	4: 폭력지향형 (N=175, 8.8%)
자아존중감	0.791	-0.376	-0.342	-0.585
경계선 성격장애	-0.882	0.402	0.267	0.880
회피애착	-0.572	0.286	0.251	0.338
불안애착	-0.737	0.378	0.145	0.594
폭력에 대한 태도	-0.542	-0.041	0.891	1.281
폭력허용도	-0.466	-0.409	1.263	2.583
폭력대응에 대한 태도	-0.419	-0.188	0.637	1.910

이어서 4개의 잠재 프로파일별로 각각의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에 대해 추정된 (estimated) 확률을 <그림 1>과 같이 나타내었다. 이때 그래프의 x축은 자아존중감, 경계선 성격장애, 회피애착, 불안애착, 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허용도, 폭력대응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며, y축은 각 잠재 프로파일이 (평균인 0과 비교하여) 해당 특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확률을 나타낸다.⁵⁾

<그림 1>에서 관계안정형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경계선성격, 회피애착, 불안애착, 그리고 폭력태도 모두가 낮아, 관계 측면에서 매우 좋은 특성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폭력억제형과 폭력관용형은 모두 자아존중감이 낮고 경계선 성격 특성과 회피애착, 불안애착 특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공통점을 보였으나, 폭력억제형의 경우에는 폭력에 관련된 긍정적인 태도가 낮게 나타나며 폭력관용형은 폭력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폭력지향형은 폭력에 관한 긍정적이고 허용적인 태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관계안정형과 폭력지향형은 서로 양극단의 특성을 보이는 잠재 프로파일임을 확인하였으며, 폭력억제형과 폭력관용형은 성격 특성은 유사하나 폭력태도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잠재 프로파일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1> 각 잠재 프로파일의 응답 특성



5) 이때 그래프는 분석을 통해 추정된 모형을 기반으로 도출된 잠재 프로파일 소속 응답자 수와 비율로 그려졌기 때문에 실제 표본으로 도출된 응답자 수 및 비율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3. 잠재 프로파일별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차이

위와 같은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인 남성의 하위유형에 따라 데이트폭력, 즉 행동통제, 정서폭력, 신체폭력, 그리고 성적폭력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행동통제($F=418.95$), 정서폭력($F=390.12$), 신체폭력($F=281.10$), 그리고 성적폭력($F=134.65$) 등 모든 유형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대해서 남성의 하위유형 간 폭력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을 통해 하위유형별 데이트폭력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먼저 하위유형에 따른 행동통제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폭력지향형이 가장 높은 수준의 행동통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관용형, 폭력억제형, 관계안정형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폭력의 경우에도 폭력지향형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정서폭력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폭력관용형, 폭력억제형, 관계안정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신체폭력과 성적폭력의 유형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사후분석 결과에서도 행동통제 및 정서폭력과 유사하게 폭력지향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폭력행동을 보였고, 폭력관용형, 폭력억제형, 관계안정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모든 종류의 데이트폭력에 있어서 폭력지향형이 가장 높은 수준의 폭력행동을 나타내며 폭력관용형, 폭력억제형, 관계안정형의 순서로 높게 나타난 분석결과는 성인 미혼 남성의 하위유형별로 데이트폭력 행동의 심각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행동통제, 정서폭력, 신체폭력, 성적폭력 중 어떤 종류의 데이트폭력을 가하는지는 달라지지 않음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⁶⁾

6) 본 연구에서는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아 공분산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성별을 공변량으로 포함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하고 Bonferroni 방법으로 사후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든 데이트폭력 가해유형에 대해서 유형 간 차이가 나타났고, 일원분산분석과 동일하게 폭력지향형, 폭력관용형, 폭력억제형, 관계안정형 순으로 높은 폭력행동을 보고하였다. 다만 정서폭력과 신체폭력의 경우에는 관계안정형과 폭력억제형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하위유형 간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차이

	하위유형	평균	SD	F	사후검정
행동통제	관계안정형(a)	-.37	.56	418.95***	d>c>b>a
	폭력억제형(b)	-.187	.68		
	폭력관용형(c)	.48	1.14		
	폭력지향형(d)	1.86	1.33		
정서폭력	관계안정형(a)	-.32	.36	390.12***	d>c>b>a
	폭력억제형(b)	-.21	.51		
	폭력관용형(c)	.47	1.26		
	폭력지향형(d)	1.83	1.85		
신체폭력	관계안정형(a)	-.25	.11	281.10***	d>c>b>a
	폭력억제형(b)	-.21	.24		
	폭력관용형(c)	.38	1.33		
	폭력지향형(d)	1.65	2.38		
성적폭력	관계안정형(a)	-.26	.44	134.65***	d>c>b>a
	폭력억제형(b)	-.12	.60		
	폭력관용형(c)	.45	1.43		
	폭력지향형(d)	1.15	2.11		

주. *** $p < .001$

실제로 분석결과에서 폭력지향형이 모든 종류의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가해행동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낮은 자이존중감, 경계선 성격 특성, 회피 및 불안애착 등의 성격 특성과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특성들을 많이 보유한 남성일수록 많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보임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폭력억제형은 폭력관용형과 유사한 성격 특성을 지녔음에도 폭력관용형보다는 확실하게 낮은 수준의 데이트폭력 행동을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폭력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폭력억제형에 속한 남성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특성을 보유하였음에도, 폭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지 않고 폭력에 대한 허용도 또한 낮기 때문에 부정적인 성격 특성이 데이트폭력이라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물론 폭력억제형의 경우 관계안정형과 비교했을 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력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표 6>의 데이트폭력 유형별 평균을 살펴보면, 관계안정형과 폭력억제형은 모든 폭력 가해유형에 대해서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의 폭력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관용형과 폭력지향형의 데이트폭력 행동은 평균을 크게 넘어서는 심각도를 보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 특성보다는 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및 허용적 태도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발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각각의 하위유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유형 간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차이를 종합해보면, 갈등해결의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얼마나 높은지, 상대가 폭력을 행사했을 때 누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응하는지, 폭력행동을 허용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 ‘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까지 이어지도록 하거나 가해행동을 억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추론할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이성 교제 경험이 있는 성인 미혼 남성을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이 행동통제, 정서폭력, 신체폭력, 성적폭력 등, 데이트폭력에 있어서 가해행동의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남성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응답자인 성인 남성들은 관계안정형, 폭력억제형, 폭력관용형, 폭력지향형과 같은 4개의 하위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도출된 4개의 유형은 서로 다른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을 보였다. 먼저 관계안정형은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들이 모두 안정적인 유형이었으며, 폭력억제형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특성들을 갖고 있으나 폭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허용적이지 않은 태도, 즉 폭력행동을 억제하는 태도가 형성되어 있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폭력관용형은 관계에 부정적인 성격적 특성을 가짐과 동시에 폭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며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유형이었으며, 폭력지향형은 폭력

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허용 정도를 보이는 유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각 하위유형 간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모든 데이트폭력 종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폭력지향형이 행동통제, 정서폭력, 신체폭력, 성적폭력 등 모든 유형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폭력관용형, 폭력억제형, 관계안정형 순으로 나타나 개인의 성격 특성 및 폭력태도 특성에 따른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의 단편적인 특성을 통해 데이트폭력 행동을 설명하기보다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각 개인이 보유한 여러 가지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의 분포 양상을 통해, 보다 안정적(stable)인 특성을 가지는 유형들을 도출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에서 폭력억제형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폭력관용형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과 비교한 경우에도 큰 차이로 낮은 수준의 데이트폭력 행동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억제형의 경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낮은 자존감, 높은 경계선적 성격, 높은 불안 및 회피애착 등의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에 대한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의하게 낮은 수준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폭력태도의 수준에 따른 폭력행동의 차이는 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발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방증하며, 데이트폭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남성만이 아니라 일반 성인 남성 전체를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에 따라 유형화한 뒤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동시에 각 하위유형 간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심각성이 실제로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는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남성과 그런 경험이 없는 남성들 사이의 특성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하는 데 성격 특성 또는 폭력태도의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특성의 차이가 결국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차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본 연구는 ‘폭력에 대한 우호적이고 허용적인 태도’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야기하는 결정적인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데이트폭

력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관련 이론들 중에서도 사회학습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개인차보다는 학습된 폭력에 대한 태도가 실제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발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과 같은 예방 및 개입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향후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내에서 폭력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적 조치의 일환으로 폭력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교정하는 인지 치료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같은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본 연구는 여성을 제외하고 남성만을 대상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혼 남성을 제외하고 미혼 남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최근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노년층에서도 중한 데이트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⁷⁾ 60세 이상을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가 갖는 또 하나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트폭력이 결혼 이후 가정폭력으로까지 확대되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Shorey, 2008), 데이트폭력의 가해자가 반드시 남성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데이트폭력이 청장년층에만 한정된 폭력 범죄가 아님을 고려하였을 때, 성인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상정하지 않고 60세 미만 미혼 남성의 표본만을 활용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성인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만약 여성이나 기혼 남성, 그리고 노년층까지 포함한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에 의한 하위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서로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의 성격 특성과 폭력태도 특성만을 활용하여 잠재 프로파일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도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데이트폭력 관련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환경 특성이 매우 다양할 수 있음에도,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특성들을 모두 포괄하여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추가

7) 배주현. “황혼 데이트 폭력 급증… 젊은이보다 더 위험하다”. 『매일신문』, 2021. 12. 20.

적인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영향요인을 고려한 유형화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다양한 변인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그 결과들이 축적된다면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유형을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각 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데이트폭력의 예방 및 중단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구혜영. (2017). 대학생 데이트폭력 허용성 영향요인 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8, 37-68.
- 김동기. (2009). 가정폭력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6), 135-159.
- 김수민·이창배. (2021). 가정폭력 노출이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와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한국경찰학회보, 86, 195-226.
- 김예정·김득성. (1999). 대학생들의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1)-가해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10), 27-42.
- 김유정·서경현. (2009). 폭력적 데이트 관계에서의 충동성과 분노 및 분노조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2), 383-402.
- 김은경·엄애선. (2010).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데이트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759-777.
- 김재엽·송아영. (2007). 가정폭력노출경험과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3, 99-125.
- 김정란·김경신.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8), 73-90.
- 김현수·신윤미·조선미·정영기·임기영. (2004). 가정폭력 남성 가해자의 유형화에 관한 예비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43(4), 461-469.
- 박현민·이병도·서우승·이창배. (2019). 아동기 직·간접적 폭력 경험이 성인 미혼 남성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77, 71-107.
- 배주현. “황혼 데이트 폭력 급증… 젊은이보다 더 위험하다”. 『매일신문』. 2021. 12. 20.
- 사공은희. (2007).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경현. (2009). 이성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4), 699-727.
- 서경현·김봉진·정구철·김신섭. (2001). 대학생들의 연애평력과 예측변인. 대한여성건강학, 2, 75-98.

- 손혜진·전귀연. (2003). 미혼 남녀의 개인적, 관계적, 상황적 변인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43-63.
- 신혜섭·양혜원. (2005). 청소년 초기의 이성친구에 대한 신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청소년학연구*, 12, 299-323.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 9. 2.).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오윤희·임성문. (2019). 대학생이 지각하는 데이트폭력 가해동기: 성차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8(1), 49-77.
- 유고은·이창배. (2021).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시큐리티 연구*, 66, 291-318.
- 윤진·양승연·박병금. (2012). 가정폭력경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 열등감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6), 79-107.
- 이병도·조춘범. (2013). 청소년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3), 71-93.
- 이숙정·권호인. (2021). 남녀의 가해동기와 폭력 정당화가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 (APIM)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4), 391-410.
- 이화영. (2014).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 과정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채영·정소영·이명신. (2010). 대학생의 폭력인식이 데이트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5, 147-179.
- 장희숙·김예성. (2004). 가정폭력 행위자의 유형: 이론에 따른 세 하위유형의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56(3), 303-325.
- 조우연·김경희. (2015). 대학생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 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성인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49, 71-96.
- 조춘범. (2012). 청소년의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이 성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음란물 접촉정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2, 145-172.
- 홍세은·정지수. (2019).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와 충동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형사정책연구*, 30(4), 69-104.

- 홍영오 (2017). 성인의 테이트폭력 가해요인. *형사정책연구*, 28(2), 321-353.
- 홍영오·연성진·주승희. (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91.
- Akaike H. (1987). *Factor Analysis and AIC*. In: Parzen E., Tanabe K., Kitagawa G. (eds) *Selected Papers of Hirotugu Akaike. Springer Series in Statistics (Perspectives in Statistics)*. New York: Springer, doi.org/10.1007/978-1-4612-1694-0_29.
- Anderson, K. M., & Danis, F. S. (2007). Collegiate sororities and dating violence: An exploratory study of informal and formal helping strategies. *Violence Against Women*, 13(1), 87-100.
- Bandura, A. (1978). Social learning theory of aggression. *Journal of Communication*, 28(3), 12-29.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In: Simpson A, Roholes WA, editor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Press.
- Cicchetti, D., & Howes, P. W. (1991).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Illustrations from the study of child maltreatment.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23(3), 257-281.
- Dardis, C. M., Dixon, K. J., Edwards, K. M., & Turchik, J. A. (2015). An examination of the factors related to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mong young men and women and associated theoretical explanations: A review of the literature. *Trauma, Violence, & Abuse*, 16(2), 136-152.
- Elbow, M. (1977).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violent marriages. *Social Casework*, 58(9), 515-526.
- Faulk, M. (1974). Men who assault their wives. *Medicine, Science and the Law*, 14(3), 180-183.
- Gondolf, E. W. (1988). Who are those guys? Toward a behavioral typology of

- batterers. *Violence and Victims*, 3(3), 187-203.
- Hamberger, L. K., & Hastings, J. E. (1986). Personality correlates of men who abuse their partners: A cross-validation study. *Journal of Family Violence*, 1(4), 323-341.
- Hamberger, L. K., Lohr, J. M., Bonge, D., & Tolin, D. F. (1996). A large sample empirical typology of male spouse abusers and its relationship to dimensions of abuse. *Violence and Victims*, 11(4), 277-292.
- Holtzworth-Munroe, A., & Stuart, G. L. (1994). Typologies of male batterers: Three subtypes and the differences among them. *Psychological Bulletin*, 116(3), 476-497.
- Jacobson, N. S., & Gottman, J. M. (1998). *When men batter women: New insights into ending abusive relationships*. Simon and Schuster.
- Lloyd, S. A., Koval, J. E., & Cate, R. M. (1989). *Conflict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In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was presented at the 1988 Conference of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Praeger Publishers.
- Lo, Y., Mendell, N., & Rubin, D.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doi.org/10.1093/biomet/88.3.767.
- Makepeace, J. M.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97-102.
- McCloskey, L. A., & Lichter, E. L. (2003). The contribution of marital violence to adolescent aggression across different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4), 390-412.
- Morey, L. C. (1991).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Morin, A. J., Morizot, J., Boudrias, J. S., & Madore, I. (2011). A multifoci person-centered perspective on workplace affective commitment: A latent

- profile/factor mixture analysi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4(1), 58-90.
- Muthén, L. K., & Muthén, B. O (2017). *Mplus. The Comprehensive Modelling Program for Applied Researchers: User's Guide* (8th ed.), LA: Muthén & Muthén.
-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546-568.
- Saunders, D. G. (1992). A typology of men who batter: Three types derived from cluster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2(2), 264-275.
-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6(2), 461-464. doi.org/10.1214/aos/1176344136.
- Shorey, R. C., Cornelius, T. L., & Bell, K. M. (2008). A critical review of theoretical frameworks for dating violence: Comparing the dating and marital field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3(3), 185-194.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ugarman, D. B., & Hotaling, G. T. (1989). Violent Men In Intimate Relationships: An Analysis of Risk Marker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9(12), 1034-1048.
- Sutherland, E. H. (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4th ed.). Oxford, England: J. B. Lippincott.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Preventing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Taking action and generating evidence*.

Typologies of Male Adults based o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Attitudes toward Violence and the Differences in Dating Violence: A Latent Profile Analysis

Hong, Seeun*·Han, Min Kyung**

Using the data on Dating Violence Survey 2015 colle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adult single males based o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attitudes toward violence, and examines whether the level of dating violence varies over latent groups in the observed data. As a result, four latent types were identified - stable relationship, violence-suppressed, violence-tolerant, and violence-oriented type. The stable relationship type shows posi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violent behavior; the violence-suppressed type show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hat negatively affected relationships but not friendly to violence; the violence-tolerant type has simila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o the violence-suppressed type, while it shows relatively tolerant toward violence; and lastly, the violence-oriented type shows much more permissive on violence than the violence-tolerant type.

The one-way ANOVA is then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are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dating violence among latent groups: The violence-oriented type shows the highest level in all aspects of behavioral control, emotion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The result that the violence-suppressed type shows a significantly lower level of dating violence than the violence-tolerant type suggests that an unpermissive attitude toward violence may moderate the expression of dating violenc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for implementing polici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 or

* Graduate student, Graduate School of Police Studies,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treatment program to establish a correct attitude on violence.

❖ Key words: dating violence, typology,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ttitudes toward violence, latent profile analysis